

## 1.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제31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00년생 구준모입니다.

저는 엘리트 축구선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대학교 1학년때까지, 학창시절 동안 교과서는 커녕 펜도 잡아본 적 없는 전형적인 체육 특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후, 운동장 밖의 새로운 삶을 위해 공부를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거쳐 법무사 시험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총 수험 기간은 2년 6개월로, 1차 시험은 인강을 통해 1년 4개월, 2차는 학원 실강으로 1년 2개월간 준비했습니다. 1차와 2차 시험의 공부 방법이 일맥상통하기에, 본 수기에서는 2차 시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 2. 1차시험

### (1) 첫번째 도전

저는 1차시험을 두 번 보았습니다 .

첫번째 시험은 방위산업체 생산직으로 군복무를 병행하며 7개월정도 준비하였고 평균 7점이 부족하여 고배를 마셨습니다.

### (2) 두번째 도전

시험명	제30회 법무사시험
응시자명	구준모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과목명	헌법,상법	민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민사집행,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점수	70	70	62	68

평균	67.5
합격선	60
합격여부	합격

확인 >

몇 개월간 휴식을 가진 다음 9개월정도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이론은 생략하여 집중이론과 문제집,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강사진 선택

헌법-이재영 강사님 / 상법-이상수 강사님 / 민법-이혁준 강사님

민사집행법-김지후 강사님 / 등기법-김기찬 강사님 / 공탁법-이천교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택기준은 2차 강의까지 병행하는 분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이런 선택기준이 2차에서도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 3. 2차시험

시험명	제3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명	구준모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41.5	23.5	32.25	47	21.5	42.25	26.5

평균	58.62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 (1) 공부방법

남들보다 출발점이 뒤에 있다는 생각은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업 내용을 무식할 정도로 암기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저의 방법은 '서브노트'와 '백지 복습'이었습니다.

\* 서브노트 : 수업 시간에 강조된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기본서에 체크한 뒤, 귀가 후 서브노트에 직접 정리 후 암기

\* 백지 복습 : 매일 노트를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복습

많은 분들이 객관식 문항은 문제집 다회독으로 공부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회독을 돌리기에는 불안감이 생겨 무작정 암기하였습니다.

애초에 2차 시험을 염두에 두고 1차 시험에서 암기 위주로 공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2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다만, 저의 방식이 1차시험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 과목별

### 1) 민법 - 이혁준교수님

실전에서 가족법 문제로 당황했지만, 알고있는 판례와 지식을 총동원하고, 조문을 조문집에서 찾아 그대로 베껴 쓰는 등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1.5점 차이로 과락을 면하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부터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조문이라도 쓰는 연습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 형법 - 이재영교수님

모의고사에서 항상 고득점을 받았던 가장 자신있던 과목이었으나, 실전에서 실수를 많이 해야 아쉬움이 남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재영교수님이 이론 과정 초기에 수업하시는 내용을 숙지한다면, 안정적인 점수 획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전에서 유사한 판례들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것이 저의 비법이었습니다. 손괴죄 구성요건에서 "A 판례는 손괴로 보았지만, B 판례는 보지 않았다"는 식의 대비 구조를 보여주면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 형사소송법 - 김영환교수님

형사소송법은 분량을 늘릴 필요 없이, 교수님이 짚어 주시는 부분과 모의고사만 챙겨도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 민사소송법 - 이혁준교수님

유조건효소판사로 공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문제를 빼고는 모의고사 그대로 나와서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 5) 민사서류 - 이천교교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감도 못 잡은채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고득점이 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수님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6) 등기법 및 등기서류 - 김기찬교수님

등기서류는 모의고사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고 등기법도 20점 빼고는 모의고사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풀었던 거 같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목차'를 활용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익숙해지면 2볼의타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4. 마치며

법무사 시험은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전입니다. 저는 공부가 안되는 날에는 과감히 술 한잔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휴식이 저에게 다음 레이스를 위한 필수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전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라도 쓰고 나오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때부터 조문 하나라도 더 적는 연습을 하는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모의고사와 더불어 교수님이 강조하신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어떤 것을 하던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